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위령 성월**
11월 위령 성월 연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열린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11월 6일(수) 오후 7시 30분에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목 협의회 모임**
11월 7일(목) 오후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메디케어 설명회**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메디케어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주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 1) 마리아 구역 : 11월 8일(금) 오후 6시 30분 짱가네에서 있습니다. <송헌배 가정 주관>
 - 2) 마틸다 구역 : 11월 10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주관>
 - 3) 비오 구역 : 11월 16일(토) 오후 6시 30분 윤모니카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4) 글로리아 구역 : 11월 23일(토) 오후 6시 Ruby Buffet(체리힐)에서 있습니다.
<강옥화 소피아 자매님과 흥혜자 마리아 자매님 주관>

우리들의 주일정성 < 10월 27일(일) >

봉헌금	\$315.00	
교무금	\$150.00	취미라(10-12)
Total	\$465.00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마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프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4번 찬양하라
제1독서	지혜서 11, 22 - 12, 2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제2독서	데살로니카 2서 1, 11 - 2, 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 루카 19, 1-10
봉헌성가	461번 엠마오스
성체성가	517번 내가 절망 속에
퇴장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31주일 11월 3일	연중 제32주일 11월 10일	연중 제33주일 11월 17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하국일, 김재숙	이상민, 이수영	김희동, 김영미

오늘의 묵상

우리는 이따금 힘겹거나 어려울 때, 하느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는 합니다. 우울함이 찾아올 때면 가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모르겠다며 절망하기도 하고, 하느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한 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에 죄인마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돌아오는 죄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십니다. 만물 안에는 당신 불멸의 영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서 멀어지며 죄를 지어 탈선하는 이의 죄를 물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다시금 당신께 충실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훈계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 다가오는 자캐오를 기꺼이 받아들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자캐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발걸음에 자캐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행여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캐오는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미사지향

지향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을 마친 김도운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김성철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봉헌자 : 미 동북부 꾸르실료 사무국